

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역내 인공지능(AI)·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, 산업부가 주도한다

- 우리 제안 APEC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 지지 확보
- 2025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한 실질적 성과 방안 마련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지난 8.16~26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(CTI3) 및 산하회의*에 참석하여, 「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」, 「디지털경제와 AI」 등 역내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,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다.

- * 서비스그룹(GOS), 디지털경제조정그룹(DESG), 투자전문가그룹(IEG) 등 관련 회의 참석
- ** APEC내 기금 및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 등 행사 개최

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「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, 「디지털경제와 AI」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(승인 여부는 8월 말 통보 예정)하였다.

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전환 및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하여, APEC 역내에 지속 가능한 공급망*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▲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, ▲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.

- * 동 사업 관련 환경, 노동, 거버넌스 등이 거론되나, 미·중 간 공급망을 둘러싼 첨예한 긴장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

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통해 “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자야 비전*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,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, 공급망,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우리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” 고 밝혔다.

- * 2040년까지 APEC 회원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△무역·투자 △혁신·디지털경제 △포용적·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
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	책임자	팀 장	이동섭 (044-203-5931)
	다자통상협력과 APEC추진팀	담당자	주무관	이제훈 (044-203-5938)